



유로존, 기술적 경기침체 진입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EU 통계청은 2011년 4/4분기 유로존 경제가 전분기(0.1%) 대비 마이너스 성장하였다고 발표함.

- 2011년 4/4분기 실질 GDP는 수출, 가계소비, 기업투자, 정부지출 등 경제전반의 위축으로 전분기 대비 0.3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 - 수출은 전분기(1.4%) 대비 0.4% 감소하여 실질 GDP를 0.2%p 하락시켰으며, 가계소비는 0.4% 감소하여 실질 GDP를 0.2%p 하락시킴.
 - 기업투자는 전분기 대비 0.7% 감소하여 2009년 3/4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, 정부지출은 0.2% 감소함.

■ 유로존 경제는 2012년 1/4분기 현재 완만한 경기침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됨.

- EU 경제통화 담당 집행위원인 Rehn은 유로존이 완만한 경기침체(mild recession)에 접어들었다고 언급함.
 - 유로존 경제는 2011년 4/4분기에 이어 2012년 1/4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보여 2012년 현재 기술적 경기침체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됨.

■ 전문가들은 재정긴축과 실업률 상승 등으로 유로존 경제가 침체를 맞고 있으며, 최근의 전반적인 경기 개선과 독일의 성장세 회복에도 불구하고 2012년 1/4~2/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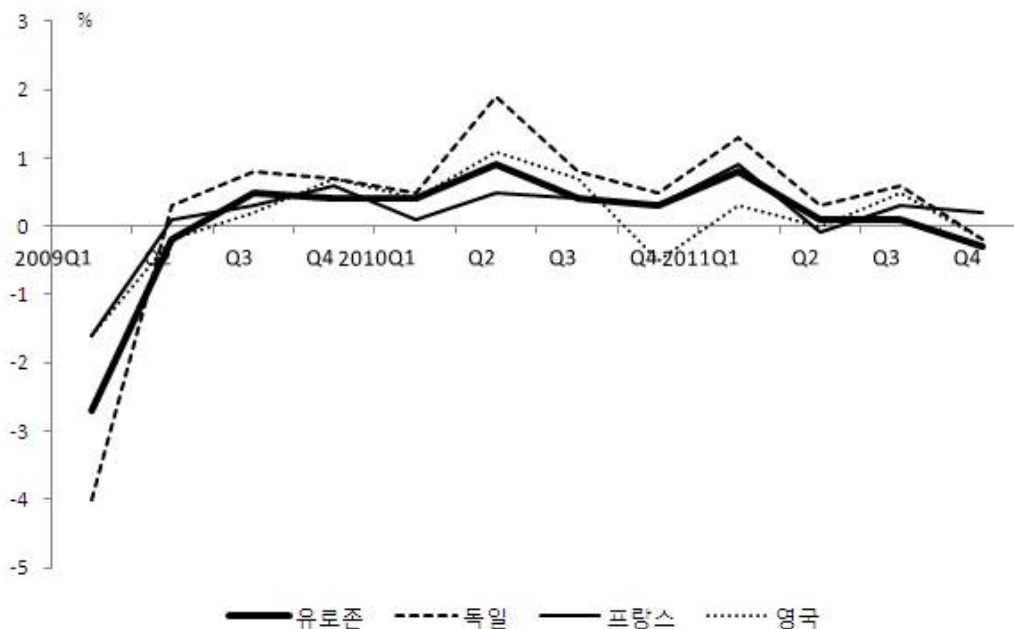
- EU 집행위원회는 유로존 경제가 상반기에 마이너스 성장하고 하반기부터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일 것이나 2012년 전체로는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.
 - EU 집행위원회는 2011년 11월에 낸 전망보고서에서 2012년 성장률을 0.5%로 예상했으나 2월 갱신한 예측에선 -0.3%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수정 전망함.

- 국가별로는 그리스, 포르투갈, 이탈리아, 슬로베니아, 네덜란드, 벨기에가 2011년 3/4~4/4분기 연속하여 마이너스 성장하였고, 독일, 스페인, 오스트리아, 스웨덴, 영국은 4/4분기 들어 마이너스 성장함.

■ 유로존은 현재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정책적 방안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, 이에 따라 빠른 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.

- 기록적인 실업률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경기진작을 위한 확장적 통화정책에 부담이 큼.
 - Wall Street Journal은 유럽중앙은행(ECB)이 현재 1%인 기준금리를 더 이상 낮추기 어려울 것으로 봄.
- 유로존 전반에 걸친 재정긴축의 움직임으로 확장적 재정정책도 어려울 것으로 보임.

〈그림 1〉 유로존 경제성장률 추이



주: 전분기 대비 성장률.
 자료: 유로 통계청.

(Wall Street Journal, 3/6)